2025년 9월의 호국인물

권준(權晙, 검교공파, 32世) 육군 소장

The Hero of September, ROK Army Major General **Kwon Jun**(1895. 5. 2. ~ 1959. 10. 27.)

과거 50사단이 주둔했던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상리공원에 '권준 장군 흉상'이 세워져 있다.

권준 장군 묘소는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자리하고 있다. 102호.

2025년 9월의 호국 인물로 권준(權晙, 검교공파, 32世) 장군(육군 소장)이 선정되었다.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선열들을 기리기 위하여 매월 '이달의 호국 인물'을 선정하여 유족 및 후손, 유관 단체 등 주요 내빈을 모시고 현양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뜻깊은 행사에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행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시: 2025. 9. 4.(목), 14:00~15:00

장소: 전쟁기념관 2층 중앙홀(본 행사), 3층 워리어라운지(리셉션)

전화: 02-709-3044

권준 장군은 1895년(고종 32년) 5월 2일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 척동리에서 아버지 권석주(權錫周)와 어머니 함창김씨 부인 사이의 5형제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권중환(權重煥)으로 본관은 안동, 호는 백인(百忍)이다.

권준 장군은 평소 성품이 강직하고 강개(慷慨)하였고 품은 뜻이 컸다. 부친은 공이 태어나던 해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복수를 위해 1896년 의병을 일으켰으나 조정의 명에 따라 해산한 후 두문불출하였다. 6대조 오와공(梧窩公, 경鏡, 26世)은 1728년(영조4년) 무신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의병을 일으켰으며 단성현감(丹城縣監)을 지냈다. 7대조 후련정(後蓮亭, 수경守經, 25世)은 1689년(숙종15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출되고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왕비에 오르자 의분을 일으켜 항장(抗章)을 올리는 데 앞장섰다. 11대조 만오헌(晩悟軒, 경호景虎, 21世)은 임진왜란 때 창의(倡義)하여 김산군수(金山郡守)로서 임금을 호종(扈從)하였다. 12대조 부사공(府使公, 소紹, 20世)은 1566년(명종明宗 11년) 안동부사(安東府使)로 재임하며 능동陵洞의 시조 태사공 묘역을 정수(整修)하고 위토(位土)를 확충하여 수호를 위한 비복(婢僕)을 능동재사에 배치하였다. 안동부 내의 태사묘(太師廟)에도 제곡(祭穀) 백석(白石)을 더하여 향사를 봉행하게 하였다. 13대조 동계공(桐溪公, 달수達手, 19世)은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호당 교리(湖堂校理)로서 연산군에 항거하여 살신(殺身)한 명현(名賢)이다. 동계공의 아내 동래정씨는 남편이 화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음을 폐하다 유해가 60여 일 만에 반구(返柩)되어 오자 장례를 마친 후 상주尙州에서 함창 고모 집에 왔는데 고모가 죽(粥)을 권하자 내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살아서 무엇하느냐며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죽었다. 중종 2년 1507년에 경상감사 장순손(張順孫)에 의해 열부烈婦의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이 같은 충절의 혈통을 이어받은 공은 11세에 을사조약(乙巳條約)으로 국권이 강탈당하는 것을 보고 16세에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당하고는 조국 광복의 뜻을 품고 약관에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17년 경성공업전습소를 졸업한 후 박상진이 설립한 대한광복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1919년

3·1운동 직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국립

퉁지대학(同濟大學) 공과에서 수학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지린성(吉林省)에서 김원봉·윤세주 등 13명의 동지와 함께 의열단(義烈團)을 결성하였다. 권준은 의열단의 활동 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 1920년부터 시작된 국내 의거를 지원하며 의열단 활동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1924년 1월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소집된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권준은여기서 반제국주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정당과 단체들이 단결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는 소규모 의거를 통한 의열단 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면적 항일투쟁을 이끌 수 있는 정치·군사적 실력을 쌓고자 국민당 정부가 설립한 황포군관학교(黃　軍官學校) 입교를 결정, 1926년 김원봉 등 동지 24명과 함께 황포군관학교 4기로 입교하였다.

군관학교 졸업 후 중국 국민혁명군 장교로 임관한 권준은 군벌 세력을 상대로 한 국민당 정부의 북벌에 참가하였고, 국민혁명군 제6군 포병영 부영장으로 재직하면서 황포군관학교 우한분교 훈련부 교관에 배속되어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중국군의 현역 장교 신분으로 독립운동의 주요 현장에 참여하였는데, 우한분교 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민당 지부 조직으로 승인된 유악청년회의 비서직 및 상무집행위원을 겸임하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청년 중 유망한 이들을 모집하여 입교시켰다.

1927년 상반기 한커우(漢口)에서 개최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東方被壓迫民族聯合會)에 참석

하여 제국주의 치하에서 고통받던 중국·한국·인도·베트남 등의 아시아 민족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자주독립을 위해 단결을 촉구하는 모습을 본 권준은 같은 해 9월 27일 창립된 한국유일독립당 남경촉성회(南京促成會)의 회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인독립운동 단체의 단결과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대륙 침략을 노골화하자 한중 연합전선 결성의 일환으로 의열단은 중국 정부와 합작하여 국민당 정부의 군사간부 훈련반 아래에 독립군의 청년 군사간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치하였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장 김원봉을 정점으로 의열단 지도부가 관리하였는데, 권준은 여기서 군사조 교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축성학(築城學)을 가르쳤다. 그러나 여기서 의견과 노선 차이가 발생하면서 1933년 1월. 권준은 오랜 동지였던 김원봉과의 결별을 선택하며 의열단에서 탈퇴하고 중국군으로 복귀하였다.

1934년 6월 난징에 있는 중국군 부대의 연장(連長; 중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중일전쟁에 참전,

우한과 장시성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측면 지원하였다. 이후 1944년 충칭으로 이동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내무부 차장으로 활동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직후에는 우한(武漢)지구 교포선무단 단장에 임명되어 광복군 제5지대장을 겸임하며 종전 직후 혼란스러운

중국 사회에서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무사히 귀국시키는 데 진력하였다.

중국에서 모든 임무를 마친 후 1946년 12월 조국으로 귀국한 권준은 이후 국군 창설에 합류하였다. 1948년 12월, 육군사관학교 8기 특별 1반으로 입교한 그는 육군 대령으로 임관하였고, 1949년 7월 수도경비사령부(現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초대 사령관에 취임하였다.

이후 6·25전쟁에도 참전하며 준장으로 진급, 제1훈련소 소장, 3관구사령관을 역임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훈하였으며, 초대 50사단장 직을 마지막으로 1956년 육군 소장에 진급 후 62세에 예편하였다.

특히 1950년 6.25동란 중에는 야전사령관(野戰司令官)으로서 분망하던 가운데 특히 안동의 시조 태사묘(太師廟)가 폭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구재(舊材)를 수색해 찾아 모으는 등 적극 수배를 하고 권·김· 장 세 성씨들과 협의하여 이를 중건(重建)케 하였다.

1968년 무신 3월 1일에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다. 공은 무관과 독립투사로서뿐만 아니라 문학(文學)에도 능하고 특히 군사학(軍事學)과 정치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어서 군사학서적 3종과 정치학 서적 2종을 저술하여 발간하였다.

예편한 지 3년 뒤인 1959년 10월 27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장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유해는 1970년 11월 17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큰아들 권태휴는 중국 운남대를 졸업하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중앙군관학교 특별훈련반에서 입교해 군사교육을 마쳤으며 이후 조선의용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에 매진했으며 1943년 임시정부 비밀명령을 받고 정보수집 등 지하활동을 전개했다.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묘소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다. 권준장군의 손자는 권영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제2대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의 시할아버지가 권준 장군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제433주년 이치대첩 기념제

진산역사문화연구회 주관

시상식

이서혜 학생, 박범인 금산군수, 김수아 학생(왼쪽부터)

이인원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가운데)

장려상 수상자들

강연한 진산역사문화연구회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진산역사문화연구회는 지난 6월 6일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치를 뽐내며 자웅을 겨루었다.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준 학생에 대한 시상식은 8월 26일 이치대첩 기념제 당일에 거행되었다.

먼저 충남도지사(김태흠) 특별상은 계룡고등학교 3학년 김수아 학생과 진산초등학교 6학년 이서혜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산군수(박범인) 특별상은 부리중학교 1학년 정명현 학생과 금산여자중학교 1학년 박주하 학생이 차지했다. 금산교육장상(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원)에는 진산중학교 3학년 박동혁 학생, 진산초등학교 4학년 김주애 학생, 금산초등학교 3학년 김빛나 학생, 진산초등학교 4학년 이시우 학생, 진산중학교 3학년 배성윤 학생, 진산초등학교 3학년 정소이 학생, 금산여자중학교 1학년 박주하 학생, 진산중학교 2학년 김주신 학생이 수상했다.

진산역사문화연구회장상(회장 강연한)에는 진산초등학교 4학년 박빛나 학생, 금산중앙초등학교 6학년 신수빈 학생, 금산초등학교 4년 김주애 학생, 진산초등학교 5학년 박찬호 학생, 금산중앙초등학교 4학년 김설하 학생, 금산초등학교 5학년 현태호 학생, 금산중앙초등학교 6학년 조민서 학생, 진산중학교 3학년 김예랑 학생이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진산초등학교 6학년 김주연 학생, 진산초등학교 3학년 오선우 학생, 진산초등학교 5학년 하지은 학생, 진산중학교 2학년 윤예찬 학생, 금산중학교 1학년 신승훈 학생, 용문초등학교 4학년 박단유 학생, 진산초등학교 4학년 한사랑솔 학생, 용문초등학교 4학년 길효주 학생이 수상했다.

이치대첩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표창장을 수상한 학생들이 국가의 동량으로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권행완 편집국장

이모저모

제433주년 이치대첩제가 진산역사문화연구회(회장 강연한) 주관으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진산역사문화연구회는 충장사가 위치한 진산면 주민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순수 민간단체이다.

이치대첩제는 이번에 처음 주관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이치대첩 두 달 전 현충일에 이치대첩 승리 기념을 위해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열었다.

백일장을 열고보니 금산군과 진산면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 최초 승리를 거두었던 이치대첩을 의외로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벌어진 자랑스런 역사적 사실도 모르다니!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다행히 진산역사문화연구회에서 백일장과 사생대회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조국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첩비각 주변에는 빙둘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제출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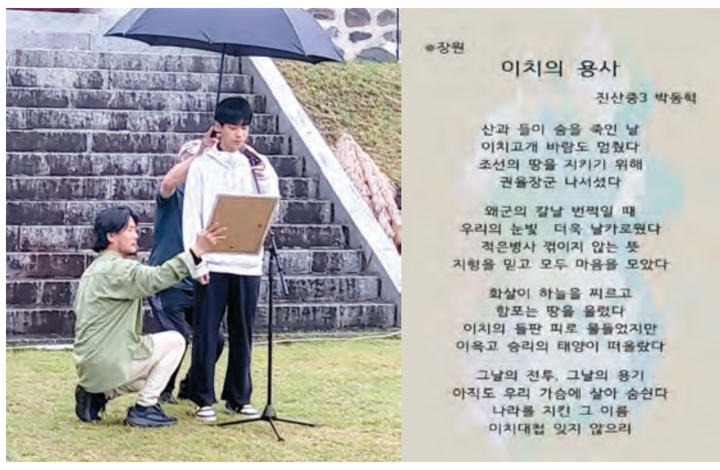
권율장군을 그린 그림을 비롯해 장원을 차지한 박동혁 학생의 '이치의 용사', 산내초등학교 4학년 김예원 학생의 '1592년 군사 승리' 등. 특히 대첩비각 내부에는 1940년대에 일본 경찰이 깨뜨려 부숴버린 비각이 허리가 동강난 그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역사의 비감이 울리는 듯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대첩비각 바로 앞에서 1970부대 32사단 군악대의 힘찬 트렘펫 소리가 울려퍼졌다. 장내가 숙연해지는 순간 조총이 발사됐다. 마침 천둥이 치고 대둔산이 깨어났다.

배꽃합창단의 노래를 끝으로 1부 행사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일행은 행복누리센터에서 춤 공연에 이어 연극 '혈류피도천곡'을 관람했다. 강연한 진산역사문화연구회 회장은 제433주년 이치대첩제를 맞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이를 보완하여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극은 400여년 전에 이치고개에서 격전이 벌어졌던 그날을 상기하며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가. 나라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자기 자신이었을까. 도대체 뭘 지키려고 했을까를 되뇌이며 피흘려 지킨 그날의 전투와 목숨 바친 선조들을 기억하는 연극이었다. 앞으로 이치대첩지가 꼭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막을 내렸다.

앞으로 진산역사문화연구회에서는 이치대첩지가 국가사적지로 지정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고 추후에는 권율장군 동상도 건립할 계획이다. 진산역사문화연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박동혁 학생이 '이치의 용사'를 낭송하고 있다.

대상, 진산중학교 2학년 김주신

대첩비각

춤 공연

연극 공연

배꽃합창단의 합창 공연